

가야 왕성의 공간구조와 경관*

최 경 규**

〈목 차〉

- I. 머리말
- II. 가야 왕성 검토
- III. 가야 왕성의 공간구조
- IV. 가야 왕성의 경관
- V. 맺음말

국문요약

가야제국에서 왕 또는 지배자가 거주한 성이 조사된 금관가야, 대가야, 아라가야, 다라국을 대상으로 주변 유적 등 고고학적 양상을 정리하여 가야왕성으로서의 구조적 특징과 경관에 대해 거시적인 측면에서의 접근을 시도해 보았다. 가야 왕성의 공간구조와 경관에 대해 검토해 본 결과, 신라와 백제와 같이 도시구획을 기본으로 하는 도로와 사찰은 조성되지 않았지만, 고대 도성체제의 구성요소인 왕궁, 취락, 왕묘, 제의시설, 생산시설 등은 두루 갖추고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왕궁과 왕묘역이 1km 이내 상당히 지근거리에 인접하며 상호 가시권에 포함되는 경관은 가야 왕성만의 공통된 특징 중 하나로 이해된다. 가야는 왕궁을 보호하는 위곽시설인 토성을 축조하면서 왕성의 공간구조를 확립해 나가는데, 특히 중요시설을 중심지로 배치하고 특수생산시설 등을 외곽으로 이동시키는 양상은 도성체제의 인식을 보여주는 정황으로 볼 수 있다. 다만, 금관가야의 경우 토성 성립 이후 400년 고구려 남정과 신라의 서진 등으로 인해 도성체제로의 발전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며 후기가야의 대국이었던 대가야와 아라가야 또한 5세기 후반 토성성립에서 멸망기까지 도성 개발에 진력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었

* 본고는 제51회 한국상고사학회 학술대회(『고대도성과 월성의 공간구조와 경관』, 2019) 발표문을 수정·보완하고 체제에 맞게 재편집하였음을 밝혀둔다.

** (재)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책임연구원

던 것으로 이해된다. 결국 가야는 미완의 도성이라 할 수 있을 것이며 이것을 바꿔 생각하면 한반도 고대국가의 도성체제로의 이행기의 양상을 보여주는 좋은 자료가 가야 왕성으로 볼 수 있다.

주제어 : 왕성, 도성, 도성체제, 위곽시설, 토성, 왕궁, 왕묘, 제의시설, 생산시설, 공간구조, 경관, 고대국가 이행기

I. 머리말

都城이란 고대국가의 國都를 가리키는 용어로 이해된다. 고대 사서에서 국도를 가리키는 용어를 분석한 기경량의 연구¹⁾에 의하면 ‘王都’라는 용어는 고대 삼국에서 국도를 의미하는 보통명사로 당대 두루 사용되었고 활용 빈도 면에서 가장 우위에 있는 용어라고 한다. 반면 ‘도성’이라는 용어는 학계에서 국도나 수도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으며, 조선시대 조선왕조실록에 1366건의 사용예가 확인되는 것처럼 조선시대 이래 보편화된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현재 사용되는 용어인 도성은 왕도와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도성(=왕도)²⁾은 일반적으로 민리의 거주지를 포함한 넓은 지역을 보호하는 위곽 시설이 갖추어진 군주가 소재한 도시를 의미한다. 도성제도는 신라와 백제에서도 6세기 중반대 이후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도시구조로 보고 있다.³⁾ 도성제도의 발달은 정치제도사적으로 집권적 국가의 출현과 재지적 기반을 가진 귀족이 도성으로 집주하여 관료로 전환되는 변화를 전제로 한다.⁴⁾ 그렇다면 도성이라는 개념을 과연 가야에 적용할 수 있을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고구려·백제·신라와 같이 왕궁을 중심으로 구축된 도로와 관청, 사찰 등이 상당히 계획적으로 배치되고, 위곽에 나성을 설치하는 등의 도성체제와 비교하기에는 아직 구체적인 자료가 부족한 실정이며 귀족층의 중심지 집주현상 또한 증명하기 어렵다. 그나마 가야제국 중 금관가야, 아라가야, 대가야의 중심지인 김해, 함안, 고령에서 토

1) 기경량, 『1. 한국 고대사에서의 王都와 都城』, 『고구려 왕성 연구』, 서울대학교대학원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17.

2) 왕도라는 용어가 적합하지만, 도성이라는 용어가 보편화되어 있어 이하 도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3) 이은석, 『고대 왕성의 비교』, 『아라가야의 역사와 공간』, 도서출판 선인, 2018.

4) 권오영, 『토목기술과 도성조영』, 『삼국시대 고고학개론1-도성과 토목편-』, 진인진, 2014, 48쪽.

성, 특수·제의건물, 생산시설, 산성 등 주요 시설이 밀집된 양상 정도는 확인되기 때문에 중심지 구조에 대한 검토는 가능하다. 자료적 한계를 감안하면 가야제국의 중심지에 대해서는 도성보다는 왕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도성이 왕이 소재한 도시 그 자체인 넓은 범위를 의미한다면 왕성은 왕이 거주한 중심지와 그 주변에 설치된 특수한 시설을 의미하는 좁은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가야제국 중 왕 또는 지배자가 거주한 성이 조사된 금관가야, 대가야, 아라가야, 다라국을 대상으로 주변 유적 등 고고학적 양상을 정리하여 가야 왕성으로서의 구조적 특징과 경관에 대해 거시적인 측면에서의 접근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II. 가야 왕성 검토

1. 금관가야

금관가야 왕성을 구성하는 여러 유적은 장기 혹은 단기간 조영되었기 때문에 그 시간상을 세부적으로 논의하기는 상당히 까다롭다. 따라서 여기서는 왕성의 가장 중요한 구조물인 토성을 기준으로 내외 시설물들의 배치양상과 성격 등을 통해 금관가야 왕성의 구조에 접근해 보고자 한다.

먼저 금관가야 왕성의 핵심부로 비정되고 있는 봉황토성⁵⁾은 봉황대 구릉의 외곽을 두르듯 조성되어 있는데⁶⁾, 봉황토성 내에는 봉황동유적을 중심으로 하는 생활주거지, 특수 초대형건물, 고상건물, 수혈유구, 패총, 토기가마, 선착장(접안 시설) 등의 특수시설 등이 갖추어져 있다. 봉황토성의 축조시기에 대해서 보고자는 5세기대로 보고 있지만 城體部에서 출토된 외절구연고배를 근거로, 이르면 4세기 후반으로도 볼 수 있기에⁷⁾ 5세기를 전후한 시점에는 축조되었을 것으로

5) 이 봉황토성은 『삼국유사』 가락국기에 보이는 1,500보의 나성과 궁궐, 전당, 무기고를 갖춘 금관가야의 왕성으로 인식되며, 광개토왕비에 보이는 임나가라 종발성으로도 추정되고 있다. (박천수, 『VI. 가야 각국사의 전개』, 『가야 문명사』, 진인진, 2019, 291쪽.)

6) 경남고고학연구소(2005), 경남발전연구원(2005),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2015·2016), 두류문화연구원(2016)에 의한 발굴조사를 통해 봉황토성의 대략적인 성벽라인이 확인되었다. 그림1에 제시한 봉황토성 추정범위는 최초 경남고고학연구소 『봉황토성』(2005) 보고서에 제시된 이후, 이 원도를 바탕으로 이후 추가 조사된 내용을 반영하여 재작도한 것이다.

7) 박천수, 『가야토기』, 진인진 ; 송원영, 2010, 『금관가야와 광개토왕비문 경자년 남정기사-김해 지역 고고학 발굴성과를 중심으로-』, 부산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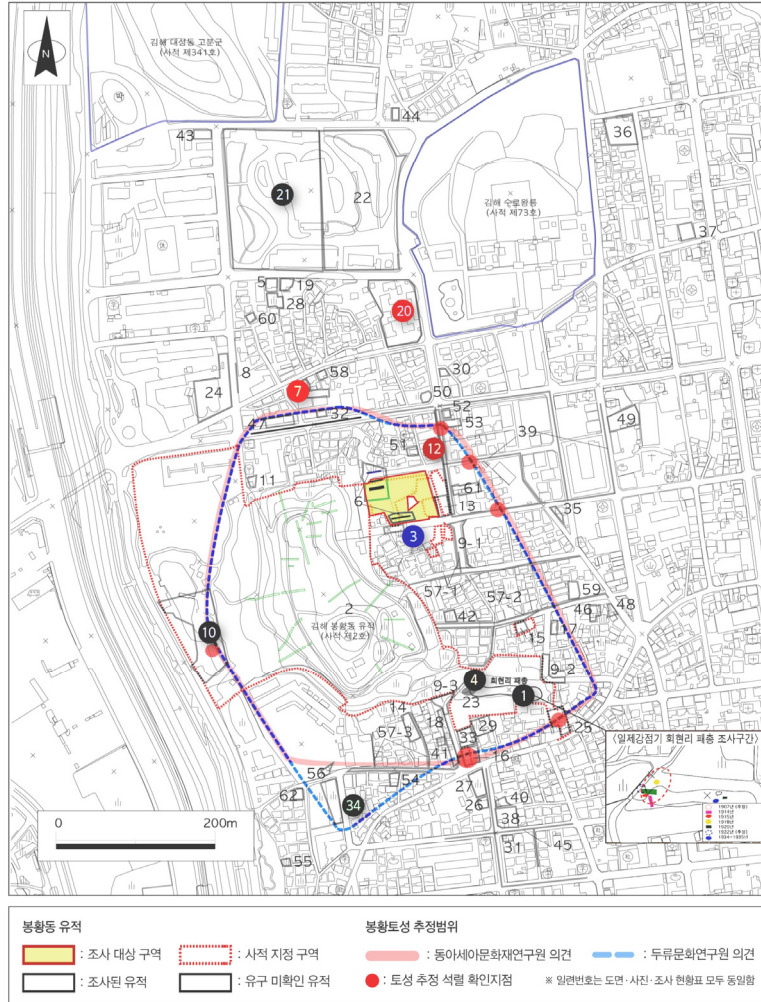


그림 1. 봉황토성 추정범위(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2016)

판단된다. 봉황토성은 북쪽의 금관가야 왕릉인 대성동고분군을 중심으로 하는 왕묘역과 남쪽의 봉황동유적 일대 생활영역의 경계를 구분하는 역할을 하며, 서쪽과 남쪽으로는 고김해만과 해반천의 영향으로부터 왕성 중심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봉황토성은 왕성에 축조된 토성에 걸맞게 상당한 공력을 들여 축조한 모습이 보이는데, 봉황토성 성체부는 2003년 경남고고학연구소에 의해 그 구조가 밝혀졌다.⁸⁾ 봉황대 구릉 동쪽 자연 경사면 아래쪽 저습지

⁸⁾ 경남고고학연구소, 『봉황토성-김해 회현동사무소~분성로간 소방도로 개설구간 발굴조사 보고서-』, 2005.



그림 2. 봉황토성 성체 모식과 성벽 확인지점
 (1·2 : 경남고고학연구소 2005, 3 : 동아시아문화재연구원 2013)

에 고정주(영정주)와 소형말뭉치 등을 사용하여 성토 기저부를 구획 조성하고, 그 상부에 판축상으로 성체를 축조하였는데, 기저부 상층은 사질토와 점질토 그리고 혼패토 등을 여러 차례 쌓고 부분적으로 불다짐하였다. 내외벽은 성체 판축부의 가장자리를 45°경사로 삭토하고 할석을 쌓아서 피복하였는데, 할석들 사이는 점토로 포장하고 불다짐하여 소토화시켜 단단히 구축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내외측으로 4회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봉황대 구릉 가장자리를 두른 단면 제형의 거대한 성체를 견고하게 축성하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이후 조사에서도 토재

의 습기제거와 방습을 통한 토벽의 강화 등을 목적으로 토벽 외부를 불다짐한 것과 저습지에 해당하는 기저부를 불다짐 정지하고 부엽공법을 사용하는 등 부지조성을 위한 지반강화에 상당한 공력을 들였음이 재차 확인되었다.⁹⁾

아울러 추정왕궁지 구역인 동쪽 일대에 대한 시추조사에서는 삼국시대 문화층이 해발 3.5~7m까지 상당히 두껍게 확인되고 있어 봉황대 동쪽 일원에 대한 대규모 성토행위에 의한 대지조성 작업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¹⁰⁾

봉황토성 내의 시설 중, 먼저 봉황대 구릉에 마련된 상징적 공간인 구 또는 환호시설이 주목된다.¹¹⁾ 봉황대 구릉 전체를 일주하지는 않지만 북쪽편에서 2조의 구 또는 환호가 조사되었는데, 구릉 정상부 가까이 좁은 범위를 두른 구는 단면 U자상이며 깊이가 20cm 정도로 얇고 시기는 4~5세기로 편년된다. 북쪽 구릉 하단부에서 조사된 다른 구는 봉황대 구릉을 넓게 감싸고 도는 형태로 단면 V자상이며 내부에서 점토대토기가 출토되어 시기가 이른 것으로 파악된다. 이 2조의 구 또는 환호에 대해 구릉 정상부를 상징적 의미로 감싸는 시설물로 보고, 봉황대 구릉이 적어도 점토대토기 단계부터 상징적인 측면에서 김해지역 정치체의 중심구역으로 인정되어 왔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¹²⁾

다음으로 봉황토성 내부의 중요시설로는 특수건물이 주목된다.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에서 조사를 진행중인 추정왕궁지 발굴조사에서 다수의 건물지가 확인되었다. 대표적인 유구는 3호 건물지로 전체 길이가 남북 12m, 동서 8m로 서편 일부는 조사구역 범위 밖으로 연장된다. 평면 원형 또는 말각방형으로 추정되며 바닥은 황색 점토와 실트혼입토를 섞어 다졌다. 가장자리에 지름 10~20cm의 벽주가 촘촘하게 돌아가고 기둥을 점토로 단단하게 보강한 형태이다. 건물지 내에서 동이와 시루, 격자문 동체편이 출토되었다. 면적은 원형일 경우 113.04㎡, 방형일 경우에는 144㎡인 초대형 규모의 건물지이다.¹³⁾ 한편 봉황대 진입로 개설구간 46호 주거지는 남쪽 일부가 조사되지는 못하였지만, 전체 길이가 8.8m, 상면 길이 5.4m의 평면 말각방형으로 입자가 고은 흑색과 적색, 황색토를 10겹 정도 교대로 다져 바닥을 조성하였다. 서쪽과 북쪽벽에 주구를 설치하고 주구 내에는

9) 두류문화연구원, 『봉황토성-김해시 서상동 331-2번지 건물신축 예정부지내 유적-』, 2016.

10) 한국고환경연구소, 『김해 가야 왕궁지 및 토성확인을 위한 학술조사보고서』, 2009.

11) 봉황대유적의 구와 환호시설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과 도면은 아래 보고서를 참고하기 바란다.

부산대학교박물관, 『김해 봉황대유적』, 1998.

12) 이성주, 『국읍으로서의 봉황동유적』, 『김해 봉황동유적과 고대 동아시아-가야 왕성을 탐구하다』, 주류성, 2018, 203~204쪽.

13) 민경선·김다빈, 『금관가야 중심지로서의 봉황동유적-최신 조사 성과를 중심으로-』, 『한국고고학보』109, 한국고고학회, 2018.

지름 10~20cm의 안쪽으로 기울어진 주혈이 다수 조사되었다. 상면에는 5개의 주혈이 검출되었고 내부에 노지와 부뚜막 같은 시설은 확인되지 않았다. 유물은 장동용, 노형토기, 고배편 등이 출토되었고, 조성시기는 3세기말 혹은 4세기 초 정도로 보고 있다.¹⁴⁾ 봉황토성 성립전에 존재한 대형건물로 추정되며 이곳이 계속해서 중심지였음을 추정케 한다. 3호 건물지와 46호 주거지 모두 기울어진 주혈과 바닥다짐이 일반 주거지와 차이를 보이고, 규모 또한 초대형이어서 특수용도의 건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최근 추정왕궁지 조사부지의 바로 동쪽 구간의 발굴조사에서 10×10m 규모의 중층 건물로 추정되는 적심건물지 1기가 조사되었다.¹⁵⁾ 중앙에 지름 1.6m의 중심 적심을 두고, 가장자리로 지름 1m 내외의 적심이 방형으로 일주하는 형태의 적심건물로 추정된다. 조사구간 내에는 중심적심 4개, 외부적심 10개가 확인되었는데 중심적심은 1×1칸, 외부적심은 5×5칸으로 구성되지만 조사구역 밖으로 규모가 더 확장될 가능성도 있다. 조사단에서는 10×10m의 중층 적심건물을 목탑지를 구성하는 사천주의 형태와 유사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중앙 심주의 부재와 불교관련 유물이 출토되지 않는 점 등에서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적심건물의 축조시기는 적심부에서 출토된 유물로 5세기 중엽 정도로 보고 있다. 건물의 성격에 관해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지만 왕궁 내 특수목적의 건물임이 확실하며 관청 또는 종교시설 등으로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특수건물이 집중 조성된 봉황동유적이 금관가야 내에서 중심지였음을 확실하다.

특수건물과 더불어 주변에서 기대, 소형토기, 토우 등 위세적인 성격과 제의적인 성격을 가진 유물이 다수 출토되는 원형의 수혈도 조사되었는데, 이러한 수혈은 중복된 양상으로 확인되며 이단굴광된 것이 특징이다. 단 아래의 깊은 부분은 제의 후의 폐기공간으로 추정되는데, 이 공간에는 목탄층과 폐각혼입층이 퇴적되어 있고 그 사이에 소형토기, 토우, 유공소호, 고래척추뼈, 대형어망추, 불명칠기 등이 출토되는 것으로 보아 물관 관련된 수변제의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¹⁶⁾

14) 부산대학교박물관, 『김해 봉황대유적』, 1998.

15) 한반도문화재연구원, 『김해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 결과 약보고서』, 2019.

16) 민경선·김다빈, 앞의 논문, 125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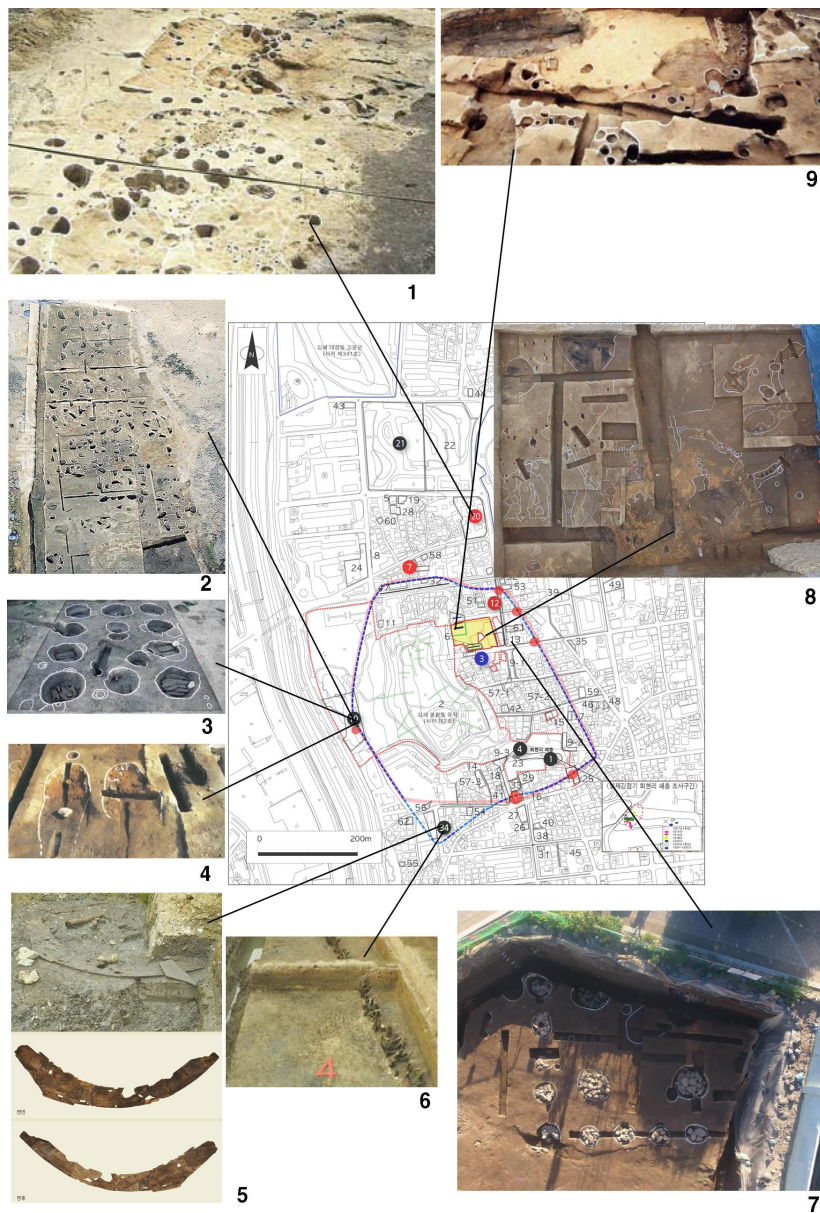


그림 3. 봉황토성 주변시설

(1. 한옥체험촌 수혈공방 : 경남고고학연구소 2007, 2·3. 가야인생활체험촌 고상건물 : 경남발전연구원 2005, 4. 가야인생활체험촌 토기가마 : 경남발전연구원 2005, 5·6. 봉황동 119-1번지 고선박부재 및 목책 : 동양문화연구원 2013, 7. 원도심도시재생사업 적심건물 : 한반도문화재연구원 2019, 8. 추정왕궁지 초대형건물 :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2017, 9. 봉황대진입로 대형건물 : 부산대학교박물관 1998)

봉황토성 내의 수공업생산시설로는 구릉 동쪽지점인 284번지¹⁷⁷에서 확인된 철생산시설을 들 수 있다. 제철로로 추정되는 평면 타원형의 소토유구와 철 산화물이 얇은 두께의 판상으로 용착된 소토유구가 확인되어 이 일대에 제철과 관련된 시설이 유존했음을 알 수 있는데, 왕성 내 철공방시설로 이해된다.

봉황토성 외곽 시설에 대해서 살펴보면 먼저 가장 중요한 시설인 왕묘역은 3세기말부터 대성동구릉을 중심으로 조영되어 있으며 73호 석곽묘가 조영되는 5세기 후반대까지 왕묘역으로서 기능하였다. 목관묘 단계인 가야의 숲 3호묘¹⁸⁷가 위치한 현재 수릉원 일대와 수로왕릉 범위까지를 왕묘역으로 인정하면 봉황토성의 북쪽 외곽 바로 인접한 곳까지 묘역범위에 포함되며 봉황토성을 기준으로 뚜렷이 구분되는 양상이다.

봉황토성 남쪽 지역인 봉황동 119-1번지¹⁸⁹에서 삼국시대 목책열과 고상건물지, 선박의 부재 및 노가 확인되어, 이곳은 해반천을 따라 왕성으로 진입하는 곳으로 항구 주변에 창고시설을 갖춘 선박장으로 추정된다. 가야인생활체험촌 부지에서도 다수의 고상건물이 조사되었는데 이와 동일한 해상교역과 관련된 항구 창고시설로 볼 수 있다. 즉, 봉황토성 서쪽의 해반천변과 남쪽 고김해만에 접한 곳으로 선박을 정박하고 해상교역을 통한 물품을 보관하는 대형 창고군이 시설되었던 것이다. 특히, 이 창고군을 이루는 고상건물의 주철 내에는 나무판으로 제작하여 기둥을 견고하게 받치는 초판(礎板, 주춧목)시설이 확인되었는데,²⁰⁷ 이를 통해 습지지형에 대형 창고시설을 구축하기 위해 가야 최초의 특수 건축공법을 사용한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수공업생산시설은 봉황토성을 기준으로 북쪽 외곽 한옥생활체험촌유적²¹¹에서 조사되었다. 점토채취장, 가마, 토기제작과 관련된 수혈 등이 조사되어 토기제작의 여러 공정이 유기적으로 행해진 공방이 이곳에 위치한 것으로 이해된다. 봉황토성 서쪽 외곽 가야인생활체험촌유적²²¹에서도 토기가마 4기가 조사되었다. 가마의 조성시기는 대략 3세기 후반에서 4세기 전반 정도로 파악된다. 그리고 봉황토성에서 북서쪽으로 약 15km 정도 떨어진 한림면의 낙동강변 층적

177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 『김해 봉황동 단독주택부지 시굴조사 보고서』, 2005.

187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김해 가야의 숲 조성부지내 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2006.

189 동양문화연구원, 『김해 봉황동유적-김해 봉황동 119-1 및 22-6 일원 주택신축부지 문화재발굴조사』, 2014.

207 경남발전연구원, 『김해 가야인 생활체험촌 조성부지 내 유적』Ⅱ, 2013.

211 경남고고학연구소, 『김해 봉황동 유적-김해 한옥생활체험관 조성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2007.

221 경남발전연구원, 『김해 가야인 생활체험촌 조성부지 내 유적』Ⅰ, 2005.

대지 내 독립구릉에 위치한 장방리유적²³⁾에서 토기가마 1기가 조사된 바 있는데, 규모와 형태 등으로 볼 때 5~6세기대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봉황토성에서 서쪽으로 10km 이격된 진례면 송현리유적²⁴⁾에서도 5세기 후반 정도로 편년되는 토기가마 1기가 조사되었다. 주변부로 더 이상의 조사가 진행되지 않아 중심지에 수급되는 토기를 생산하던 대규모 수공업 생산시설이었던지 확실하지 않지만 봉황토성이 성립하기 전단계에 중심지 인근에 위치하던 생산시설이 외곽으로 이동하였을 가능성을 상정해 볼 수 있다.

봉황토성 외곽의 제철시설은 진영 하계리유적과 여래리유적에서 조사되었는데, 두 유적 모두 봉황토성에서 북서쪽으로 약 15km 정도 이격된 곳에 위치한다. 여래리유적²⁵⁾에서는 제철과 관련된 수혈과 특수용도의 지면식과 고상식 건물이 분포하며 특수시설인 팔각건물도 조사되었다. 제철시설 외에 소량이지만 토기제작과 관련된 유물도 출토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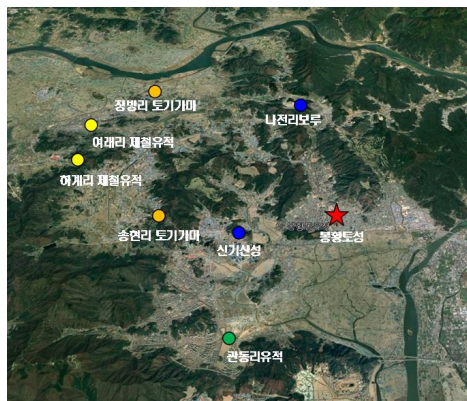


그림 4. 봉황토성 외곽 시설 분포

어 복합 생산시설로 볼 수 있다. 하계리유적²⁶⁾에서는 고탄소 환원괴를 생산하는 제련로 1기와 이와 관련된 주거지와 수혈, 구, 주혈군 등이 조사되었다.

금관가야의 농경지는 아직까지 조사된 자료가 상당히 부족하지만, 김해 건설공고 운동장부지²⁷⁾와 대성동 85-8번지유적²⁸⁾에서 각각 삼국시대 수전과 일시적으로 운영된 경작지가 조사된 바 있다. 이곳은 봉황토성 북쪽 바깥으로 약 1km 정도 이격된 곳이며, 대성동 왕묘역의 북동쪽 인근한 곳에 해당한다.²⁹⁾

마지막으로 방어시설인 산성으로는 신기산성³⁰⁾과 나전리토루³¹⁾가 조사되었

23) 동서문화재연구원, 『김해 장방리유적-김해 장방리 875번지 일대 주택건설부지내 유적-』, 2015.

24) 경남문화재연구원, 『김해 송현리 공장신축부지내 김해 송현리유적』, 2011.

25) 우리문화재연구원, 『김해 여래리유적』, 2009.

26)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김해 하계리 제철유적』, 2011.

27) 강산문화재연구원, 『김해 건설공고 운동장 부지 내 매장문화재 발굴(시굴/정밀)조사 결과보고서』, 2017.

28) 경남문화재연구원, 『김해 대성동(85-8)주택신축부지 내 유적』, 2017.

29) 금관가야의 농경지(경작지)에 관해서는 『삼국유사』 신답평 기사가 주목되는데, ‘新畝坪=새논실’로 ‘답평=논실’이 된다. 현재 김해여자중학교와 수로왕릉 사이의 구역이 지형도상 논실로 되어 있으므로 이 일대가 금관가야의 유력한 농경지의 가능성이 있다.

다. 신기산성은 남쪽으로 낙동강 하구와 고 김해만을 조망하고, 서쪽과 북쪽으로는 진례와 삼랑진 방향으로 진입하는 길목을 관할하는 요충지에 축성되어 있다. 포곡식산성이며 목책성으로 초축된 후에 신라에 의해 석축성으로 개축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전리토루는 밀양의 삼랑진을 넘어 생림면을 경유하여 김해로 들어오는 주요 교통로를 감시하고 차단하는 보루유적으로 산 정상부의 자연지형을 따라 원형에 가까운 방형으로 축조하였다. 내부에는 망루와 창고, 막사건물 등으로 추정되는 유구가 조사되었다.

그 외 특수시설로 관동리 진지유적에서 조사된 대규모 도로유적과 선착장이 존재한다. 도로유구 주변에는 대규모 고상건물이 위치하는데, 특수 창고시설로 파악되고 있다.³²⁾

2. 대가야

대가야의 중심지는 고령의 지산동고분군이 위치한 대가야읍 일대로 알려져 있다. 원삼국시대 중심지인 고령군 개진면 반운리 일대에서 4세기대에 고령향교가 위치한 대가야읍 연조리 일대로 이동하게 된다. 이곳에 전 대가야궁성지가 위치하며 이곳을 중심으로 대가야 왕성이 조영되었다.³³⁾ 대가야 왕성을 구성하는 고고자료는 궁성지와 유사시 피난성으로 추정되고 있는 주산성, 그리고 왕묘역인 지산동고분군이다.

전 대가야궁성지는 지산동고분군과 주산성이 소재하는 주산에서 동쪽인 읍소재지 쪽으로 흘러내린 능선이 평지에 닿은 설상대지 일대에 위치한다. 이 설상대지는 전체적으로 긴 타원형을 이루고 동쪽이 넓고 서쪽이 약간 좁아지는 형태를 띠고 있다.³⁴⁾ 대가야궁성지는 2000년 경북대학교박물관에 의한 발굴조사³⁵⁾를 통해 대형 대벽건물지와 와즙건물지가 조사되었으며 최근 연조리 594-4번지³⁶⁾

30) 두류문화재연구원, 『신기산성-김해 154KV 주촌분기 T/L구간 철탑부지 내 유적-』, 2015.

31) 동서문화재연구원, 『김해 나전리토루-김해 나전리 토취장 사업부지내 유적-』, 2012.

32) 소배경, 『김해 관동리유적과 가야의 항구-김해 관동리 삼국시대 진지(津址)를 중심으로-』, 『가야의 포구와 해상활동』, 주류성, 2011.

33) 현재 대가야 왕궁의 위치에 대해서는 약간의 견해 차이가 있는데, 연조리 일대로 보는 의견(경북대학교박물관 2006, 김세기 2003)과 지산동고분군의 남동쪽 못산골로 보는 견해(이희준 2017)가 있다.

34) 가온문화재연구원, 『IV.고찰』, 『고령 연조리 594-4번지 유적』, 2019.

35) 경북대학교박물관, 『전 대가야궁성지』, 2006.

36) 가온문화재연구원, 『고령 연조리 594-4번지 유적』, 2019.



그림 5. 전 대가야궁성지 내 유구 분포

(1. 전 대가야궁성지 평면도, 2. 3호건물지-토성기단으로 추정, 3. 연조리594-4번지 해자, 4. 연조리 594-4번지 토성벽, 5. 대벽건물지, 6. 대벽건물지 출토유물 ※1·2·5·6 : 경북대박물관 2006, 3·4 : 가온문화재연구원 2019)

유적에서 토축성벽과 해자 등이 조사되어 연조리 일대가 대가야 왕성의 중심지임이 확실시되고 있다.³⁷⁾

³⁷⁾ 이외에도 국립진주박물관에서 1995년 고령읍에 대한 지표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이때 고령군

대형 대벽건물지는 벽체시설이 주주와 간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2기의 대형 부뚜막이 설치되었고, 앞부분이 개방된 주방과 같은 성격의 건물로 일반건물이 아닌 특수건물로 추정하고 있다. 보고자는 고구려 안악3호분 벽화에 등장하는 부엌그림에 보이는 대벽건물과 성격이 유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주변에서 조사된 생활유구에 비해 그 규모와 구조가 탁월하여 이 일대가 궁성지로 추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대벽건물은 백제의 부소산성과 왕실 제사시설인 정지산유적의 예가 대표적이며 부여 화기산, 군수리유적에서도 조사된 바 있는 특수한 시설에 축조된 건축물로 이해된다.

연조리 594-4번지 유적에서 조사된 토성벽³⁹⁷과 해자는 구릉의 사면과 아래에서 확인된다. 해자를 조성하기 위해 경사면 북쪽에 기단석열을 먼저 쌓고 흙을 뒷채운 후 성토면 일부를 굴착한 후에 해자가 조성되었다. 해자는 남북 폭이 7m, 동서 길이가 14.3m, 깊이 0.9m이다. 성벽은 할석을 2~3단 쌓고 상부는 판축으로 조성하였다. 석열은 기초부로 3열 확인되었다. 성토범위로 본 외성벽의 폭은 5.55m이며 성벽 내에서 영정주로 추정되는 주혈이 일부 확인된다. 토성벽과 해자의 초축은 출토된 유물로 보아 5세기 후반 정도로 편년된다.

연조리 일대에는 상기한 대벽건물과 성벽 이외에도 ‘王井’ 또는 ‘御井’으로 전하는 우물이 조사된 바 있다.³⁹⁷

전 대가야궁성지와 조합을 이루는 배후산성인 주산성은 대가야읍내를 서쪽에서 병풍처럼 감싸고 있는 고령의 진산인 주산에 축조된 석축산성이다. 위기시

보건소 건물 남쪽 절토지(연조리 563-3번지)에 대한 토층조사 과정에서 석축과 토성의 흔적이 확인되었다. 이 석축과 토성은 대가야 궁성지의 성벽과 관련된 것으로 대가야 왕성을 이해하는데 참고된다.(임학중·이정근, 『고령 연조리 563-3번지 대가야 토성에 대하여』, 『수리·토목고고학의 현상과 과제』Ⅱ, 우리문화재연구원 개원14주년 기념, 우리문화재연구원, 2018.)

³⁹⁷ 대가야궁성지의 경북대학교박물관 조사내용을 재검토한 최재현은 기존에 조사된 3호 건물지 석열에 대해 해자 안쪽에 위치한 궁성지 성벽인 토성의 내부 기단석열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연조리 594-4번지 조사내용을 참고한다면 타당한 검토로 보여진다.(최재현, 『대가야읍내 취락과 대가야궁성』, 『고령의 기와』, 대가야박물관, 2017.)

³⁹⁷ 김중철, 『고령군 연조동 전어정지발굴조사보고』, 『고령지산동고분군』, 계명대학교박물관, 1981. 이 보고문에 따르면, 우물은 대가야 궁성지에서 북서쪽으로 약 500m 이격된 곳에 위치하는데, 1976년 조사되어 상한이 가야시가지까지 소급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신증동국여지승람 고령현 고적조에 ‘현 남쪽 1리에 大伽倻國宮闕遺址가 있고 그 옆에 石井이 있는데 세상에서 御井이라 전한다.’라는 기록이 전하는데, 이 기록의 御井과는 위치가 달라 별개의 것이다. 하지만 1910년에 편찬된 이두훈 선생의 고령지에서는 『읍내에 御井이 2개 전하며, 하나는 신증동국여지승람에 기록된 옛 궁궐터에 있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관아 북쪽 활 한 마당거리 있으며 王後井이라 이름하여 전설에 大加王食井이라 한다』고 하여, 조사된 우물은 또 하나의 대가야 왕정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조사된 우물은 대가야 왕성의 구조와 경관 복원에 참고할 만 하다.



1



2



3

그림 6. 주산성과 목곽고(대동문화재연구원 2017)

(1. 주산성 추정남문지 전경, 2. 주산성 성벽접합부 전경, 3. 목곽고 전경)

대피성의 기능을 한 것으로 2차례의 정밀발굴조사 결과,⁴⁰⁾ 내외성 모두 석축성벽을 쌓았고 내성이 외성보다 늦게 구축된 양상이다. 내외성 모두 편축식으로 축조하였다. 출토유물로 볼 때, 5세기말~6세기 중엽경에 걸쳐 축조된 것으로 파악된다.

주산성 성내 시설로 주목되는 것은 대형 목곽고인데 대가야 멸망전에 축조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암반층까지 굴착하고 바닥과 벽체에 니질점토 등으로 방수층을 조성하고 각목재를 사용하여 격자상의 골조를 구성하여 축조하였다. 목곽고 구축시에 남조척을 적용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동일한 구조로는 공주 공산성, 대전 월평동유적, 금산 백령산성, 이천 설성산성 등 백제지역의 성곽에서 확인된 저장시설과 유사한 점 등으로 보아 6세기 무렵 백제와의 관계에서 그

40) 대동문화재연구원, 『고령 주산성』 I, 2014.

대동문화재연구원, 『고령 주산성』 II, 2017.

축조 기술이 전수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⁴¹⁾

최근 조사된 봉화산유적⁴²⁾에서 대가야 시기에 축조된 석축성벽과 집수시설이 확인되었다. 봉화산성은 낙동강 서안에 접한 독립구릉 정상부에 위치하며, 강 건너 신라권역으로부터의 공격을 막는 왕성 최전방 방어시설에 해당한다. 둘레 약 440m, 면적 9,400㎡ 정도의 작은 규모의 산성으로 유사시에 입보농성하며, 방어체계를 염두에 두고 축조된 산성이다. 축조시기는 주산성과 비슷한 시기이다. 내부에는 집수지가 조사되었는데, 1차의 다각형 석축 집수지와 원형의 1차 집수지로 구분되는데, 대가야 시기의 집수지는 1차의 다각형 석축 집수지로 6세기 3/4분기 이전에 축조된 것으로 판단된다.

왕묘역인 지산동고분군은 진산인 주산의 남편으로 이어지는 능선과 읍내 쪽의 가지능선 일대에 700여기의 고총이 분포한다. 대형고총을 기준으로 대체적으로 동쪽 능선 말단부에서 왕묘역의 조성이 시작하여 정상부로 향하는 경향을 보인다. 입지별 축조변화와 규모의 변화를 통해 대가야 세력의 성장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왕성 밖에 위치하는 유적 중에서 생산시설로는 전 대가야궁성지에서 남서쪽으로 약 6.5km 떨어진 곳에 송림리 대가야 토기가마⁴³⁾가 있다. 안림천 북편으로 발달한 완만한 능선의 동사면부에 입지하며 토기가마 3기와 폐기장이 조사되었다. 토기가마에서 埴이 출토되어 대가야 궁성지나 주산성에 보급한 껌업가마로 추정된다. 생산된 주요기종은 개, 배, 고배, 파수부완, 완, 장경호, 호, 발형기대, 통형기대, 저평통형기대, 고리형기대, 장동용, 연화문전, 무문전 등으로 고분과 생활용품 전 기종을 생산하였음을 알 수 있다. 조업시기는 5세기 후엽~6세기 전엽으로 편년된다.



그림 7. 고령 송림리 출토 연화문전(국립김해박물관 · 한국매장문화재협회 2016)

41) 최재현, 『V.고찰』, 『고령 주산성』Ⅱ, 2017, 112~115쪽.

42) 대동문화재연구원, 『고령 봉화산유적』, 2019.

43) 영남문화재연구원, 『고령 송림리 대가야 토기가마 유적』, 2017.

그리고 대가야궁성지에서 서쪽으로 10km 정도 떨어진 야로지역에는 대가야의 성장동력으로 알려진 철산이 분포한다. 조선시대 제철유구만 확인되었고⁴⁴⁾ 삼국시대 제철유적은 조사되지 않아 추정 정도로만 알려져 오고 있다.⁴⁵⁾ 대가야 시기부터 철산이 개발되었다고 한다면 철생산시설 또한 왕성 중심지 외곽에 배치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 외 대부분 지표조사를 통해서만 확인되었지만, 산성 유적의 배치형태를 통해 왕성 방어체계를 파악해 볼 수 있다. 고령지역에는 합천군 북부지역의 3개 소 산성을 포함하여 현재까지 20개소의 산성이 확인되고 있다. 대가천 유역과 낙동강 유역에 성곽이 집중분포하는데 이는 신라가 대구, 현풍, 창녕지역에 성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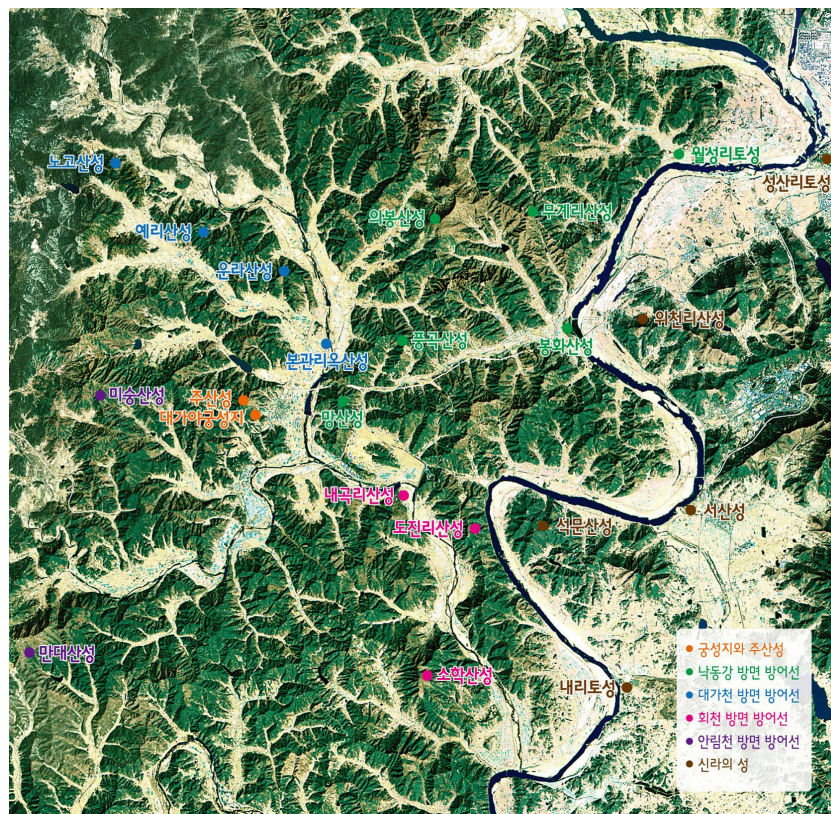


그림 8. 대가야 산성배치(대가야박물관 2013)

44) 경남고고학연구소, 『합천 야로 야철지 시굴조사보고서』, 2006.

45) 김권일은 4세기 중엽 야로철산의 개발로 대가야가 정치·경제적으로 급성장하였다고 보고 있다.(김권일, 『대가야 철의 생산과 유통 추론』, 『대가야 문물의 생산과 유통』, 대가야학술총서 10, 고령군대가야박물관·(재)영남문화재단구원, 2015, 129쪽.)

을 축조함에 따른 갈등의 결과물로 이해된다.⁴⁶⁾ 이러한 산성의 기능은 대가야읍의 왕성방어가 주목적이었을 것이다.

대가야의 궁성지 주변 생활유적을 통해 왕성 내 취락 양상을 확인해 볼 수 있지만, 인근한 곳에서 조사된 생활유적에서는 대부분 수혈과 주혈군 등만 확인된다. 일부 저습지를 개간하는 등 저지대 이용전략을 확인할 수 있는 유적(고령 왜빈리 433-11번지)이 조사되었지만 특수시설의 건물지 등은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대가야의 왕성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생활유적은 현재까지는 자료적 한계가 있다.

3. 아라가야

아라가야의 고도는 함안으로 그 중심지는 추정 왕궁지와 왕묘역인 말이산 고분군이 위치하는 가야읍 일대이다. 아라가야 왕성을 구성하는 고고유적으로는 왕궁지와 왕묘역, 왕성의 침수를 방지하는 제방, 대형건물, 생산시설, 산성 등이 있다.

아라가야 왕궁지의 위치는 최근 사적 제554호로 지정된 함안 가야리유적으로, 가야리 독립구릉(해발 약 43m)의 북쪽 사면에 위치한다. 1587년 편찬된 『함주지』에 옛 가야국터로 소개되고 있으며 1656년 『동국여지승람』에는 ‘古國墟’라 기록되어 있다. 가야리유적의 북쪽은 급경사 지형으로 폐쇄적이며, 남쪽에는 신음천과 광정천이 합류하고 동북쪽의 함안천에 합수하는 등 자연해자로 둘러싸여 있다. 북쪽으로는 적의 접근이 어렵고 동남쪽으로는 시야가 트여 주변 저지대를 관망하기 좋은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 가야리유적 토성벽(이하 가야리토성으로 명칭)은 구릉 북서쪽 사면에서 약 8.5m 높이, 20m 폭으로 축조하였고, 성벽 상부 외곽을 따라 목주열이 조사되었다. 구릉 정상부의 성벽 내부에서는 지상식 건물지 2동과 수혈건물지 12기가 확인되었다.⁴⁷⁾ 가야리토성은 출토유물로 볼 때 축조시기는 대략 5세기 중엽~6세기 중엽 정도로 편년된다. 토성벽은 구릉 정상부 평탄지에 성벽을 쌓아 내·외벽을 갖춘 일반적인 토성과 다르게 자연 단애를 기본적인 방어벽으로 삼고, 단애 상부를 성토하여 방어력을 보강한 ‘지형보강공

46) 조효식·장주탁, 『가야의 성곽』, 『가야고고학개론』, 진인진, 2016.

47) 가야리유적의 조사내용은 최근 공표된 아래의 자료를 인용하였다.

이춘선, 『함안 아라가야 추정 왕궁지 최신발굴성과』, 『2018 가야문화유산 최신조사성과』,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2018 ; 이희준, 『함안 아라가야 추정 왕성지 발굴조사 성과』, 『2019, ‘가야리유적’(전 아라가야 왕궁지) 사적지정을 위한 학술심포지엄』, 창원대학교 경남학연구센터, 2019 ;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사적 제554호 함안 가야리유적-추정 왕궁지-현장공개자료』, 2019.10.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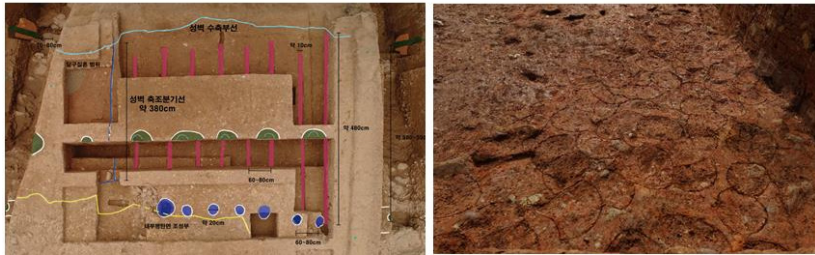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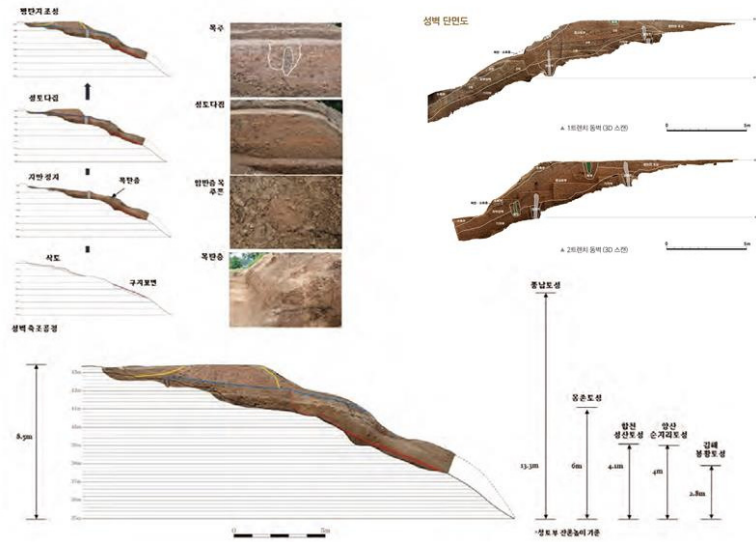


그림 9. 가야리토성(이춘선 2018,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현장설명회자료 2019.10)

법'이라는 축조기술을 사용하였다. 통상적인 토성의 외벽 경사각보다 10° 이상의 급경사를 유지하고 있는데 여기에 사용된 핵심기술을 목주의 사용으로 본다.⁴⁸⁾ 경

⁴⁸⁾ 심광주, 『가야리토성의 축성법과 의의』, 『2019 ‘가야리유적’(전 아라가야 왕궁지) 사적지정을 위한 학술심포지엄』, 창원대학교 경남학연구센터, 2019.

사각이 높은 가야리토성의 성벽은 상당히 발달된 축조기술을 적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최근에는 중심토루 구간에서 횡장목이 확인되었는데, 직경 10~15cm 내외의 단면 원형으로 내측 영정주에서 시작되어 외벽 쪽으로 4.8m 정도 뻗어 있는 모습이 평면상에서 확인된다. 아울러 판축공법의 흔적인 달구질흔도 확인되었는데, 현재까지 조사에서 종장목과 판목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판축공법으로 축조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판축공법은 상당히 높은 기술적 수준의 토목공법으로 한성기 백제 도성인 풍납토성과 사비기 부소산성에서 사용된 사례로 볼 때 가야리유적의 토성에는 당시 최고기술의 공법이 적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왕성을 자연 침수재해로부터 방지하는 제방(가야리제방⁴⁹⁾)의 존재이다. 제방은 고대부터 농경생산의 안정을 목적으로 축조된 수리시설로 흙을 주재료로 사용하는 대규모 토목구조물이다. 당시 최신의 토목기술이 구사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가야리제방은 남문외고분군이 위치하는 구릉과 가야리토성이 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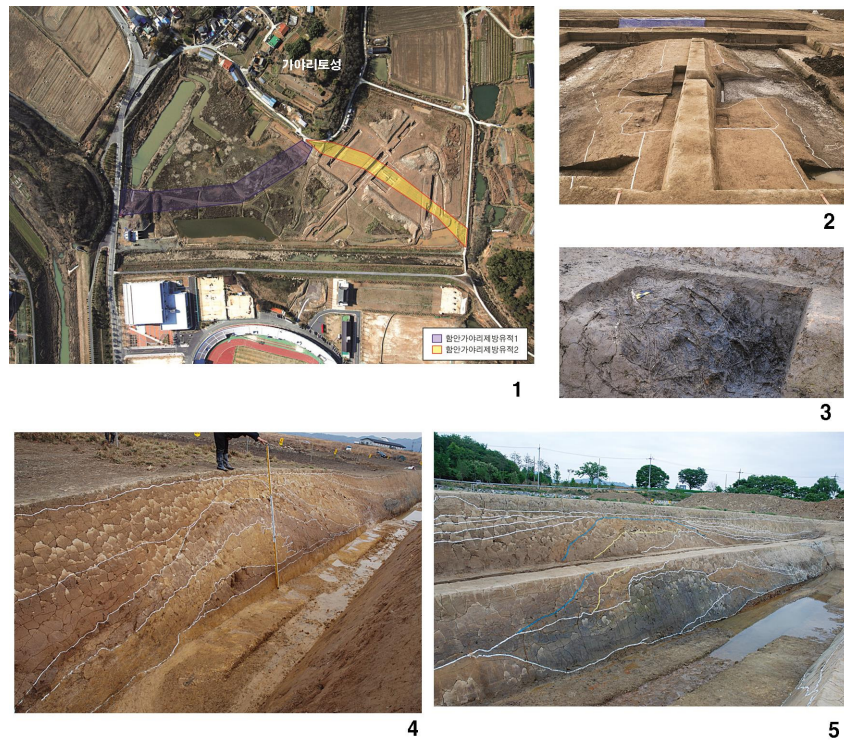


그림 10. 가야리제방(우리문화재연구원 2010·2013)
 (1. 가야리제방1·2 위치, 2. 가야리제방2 평면, 3. 가야리제방2 부엽층, 4·5. 가야리제방 토층단면)

49) 우리문화재연구원, 『함안 가야리 제방유적』, 2010.
 우리문화재연구원, 『함안 가야리 제방유적』2, 2013.

치하는 구룡이 연결되는 谷口에 입지한다. 가야리제방은 남강의 잦은 범람의 피해를 막고 가경지의 확보 등 토지이용전략 차원과 제내지의 중요시설을 보호할 목적으로 축조되었다. 곡구를 택한 것은 축조길이를 줄여 노동력을 절감하려는 의도로 이해된다. 가야리제방의 축조시기는 출토된 유물과 AMS연대를 바탕으로 5세기 중엽~6세기 중엽 사이로 보고 있다. 가야리제방은 흙만 이용하여 축조하였으며 堤體盛土에 점질토와 사질토를 수평·경사향 또는 무질서하게 互層성토하였고 축조과정에서 토낭과 부엌공법을 사용하는 등의 축조공법이 활용되었다.

아라가야의 대형건물은 함안 충의공원 부지에서 조사되었는데⁵⁰⁾, 대형건물은 해발 20~40m의 독립구룡상에 위치한다. 이 구룡에서는 왕궁지인 가야리토



그림 11. 함안 충의공원 대형건물지((사)ICOMOS-KOREA 2017)

50) 동아세아문화재단연구원, 『함안 충의공원 조성부지내 문화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2006.

성과 왕묘역인 말이산고분군이 조망된다. 대형건물은 전체규모가 길이 39.96m, 폭 15.91m이며 대형의 중심주혈 6개와 외부로 34개의 주혈이 잔존하며, 평면 타원형상으로 상당히 독특한 구조의 대형건물로 그 유례를 찾기 어렵다. 출토된 유물은 대략 4세기 중엽~5세기 중엽 사이로 편년되므로 축조시기 및 사용 시기도 그 사이로 추정하고 있다. 대형건물의 규모와 형태, 입지로 보서는 국가에서 관리하는 주요 시설물로 추정해 볼 수 있다.⁵¹⁾ 주변으로 고상건물지와 군집 저장 공간인 대형수혈군이 조사되었는데, 이는 중요행사에 물품을 공급하는 관리시설로 파악하고 있다. 이러한 부속시설은 체계적인 관리를 반영하는 시설물로 여겨진다. 대형건물은 아라가야의 중요시설물이 모두 조망되는 곳에 위치하고 있어 아라가야 왕실의 중요행사를 집행하던 공공시설물로, 신전과 같은 기념비적인 건축물의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길이 40m에 달하는 초대형 특수건물을 축조하고 운영하는 데에는 발전된 토목기술과 더불어 집권화된 중앙권력의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였을 것이다.

아라가야 수공업생산시설은 토기생산시설로 대표된다. 우거리를 비롯해 장명 묘사리, 윤내·윤외리 등 범수면 일대에 16개소 정도가 확인된다.⁵²⁾ 범수면 일대는 남강변 가까이 위치하며 잦은 침수범람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이곳은 범람원 등으로 발달된 수로교통의 요지로 남강을 통해 의령, 낙동강을 통해 창원 등지로 왕래가 용이한 지역이다. 토기가마의 조업시기는 출토유물로 볼 때 4세기에서 5세기 전반으로 추정되며, 집약적인 토기생산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파악된다. 범수면 일대에 16개소의 토기가마터가 밀집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아라가야에서는 전업적 수공업체제가 완성되어 운영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2. 함안 우거리토기가마(김지연 2019)

아라가야의 산성은 축조목적이 왕궁 방어 및 낙동강과 남해 등 주 교통로 통제에 있다. 함안군의 성곽은 모두 23개소인데 아라가야 시기에 축조된 산성은 13개소 정도이다. 산성은 현 가야읍내와 여항면을 2~3중으로 둘러싸듯 배치되

51) 『일본서기』 계제기 계제황후 23년조(529년) 기사에 등장하는 高堂會議 장소로 추정하는 견해가 많지만, 출토된 유물과의 연대적인 차이로 단정하기 어렵다.

52) 이정근, 『함안 우거리토기생산유적』, 국립김해박물관, 2007. ; 문화재 GIS인트라넷시스템.

어 있다. 크게 남·서·동쪽에 집중적으로 축성되어 있으며, 남강 및 낙동강을 조망하기 유리한 지점이나 합류점에는 산성이 확인되지 않는 특징이 있으며 서로 인접해 있는 등 왕성인 가야읍을 방어하기 위한 축성임이 뚜렷하다.⁵³⁾ 아라가야 북쪽 경계의 외곽방어를 담당한 산성으로 파악되는 안곡산성은 다량의 활석과 점토를 활용하여 체성부를 조성하였는데 내부에 석축구조물을 만들고 뒤채움과 외피를 흙으로 마감한 구조로 아라가야 왕묘역인 말이산 봉토분의 축조공법과 공통된 토목공법을 사용한 특징이 확인된다.⁵⁴⁾



그림 13. 함안지역 고대교통로와 고대산성(안성현 2017)

마지막으로 왕묘역은 말이산고분군과 남문외고분군으로 추정 왕궁지인 가야리유적에서 3km 내에 입지한다. 말이산고분군의 대형고총은 직경 20m 이상 급으로 5세기 중엽~6세기 초에 집중적으로 조영되며, 남문외고분군은 6세기 전반 이후에 왕묘역으로 활용되었던 것으로 파악된다.⁵⁵⁾ 말이산-남문외고분군 외에 왕성 내에는 선왕고분군, 필동고분군 등 10m 전후의 고총이 조영된 고분군도

53) 안성현, 『함안지역의 가야산성』, 『아라가야산성, 보존과 활용』, 2017창원대학교 경남학연구센터 학술심포지엄, 2017.

54)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함안 안곡산 봉수대(안곡산성 학술발굴조사) 정밀발굴조사 약식 보고서』, 2019.

55) 남문외고분군에서 가장 규모가 큰 11호분는 횡혈식석실로, 말이산고분군에 조영된 고총고분의 매장주체부인 수혈식석곽과 묘제를 달리하며, 시기적으로 6세기 초엽에 축조되어 아라가야 횡혈식석실에서 가장 이르다. 말이산고분군에서도 횡혈식석실이 조영되기는 하지만 4기에 불과하고, 시기적으로도 6세기 중엽 정도로 남문의 11호분보다 늦다. 그리고 규모 또한 앞 단계 말이산 고총고분과 남문의 11호분과 비교하면 우월성은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말이산에서 수혈식석곽을 매장주체부로 한 고총고분의 조영이 6세기 초엽 정도에 종료되고 새로운 묘제로 전환하면서 왕묘역이 남문외로 이동하였을 가능성이 높다.(최경규, 『아라가야 고분군 분포로 본 공간활용과 그 의미』, 『아라가야의 역사와 공간』, 도서출판 선인, 2018.)

입지하는데, 발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정확한 성격을 확인하기 어렵지만 아라가야 왕 이하 지배자(귀족층)의 묘역으로 생각된다.

4. 다라국

다라국은 『일본서기』와 양직공도에 보이는 가야 소국의 하나이다. 다라국의 왕묘로 알려진 합천 옥전고분군과 바로 인접한 곳에 성산토성이 최근 조사되면서 다라국 도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⁵⁶⁾ 3차례의 학술조사를 통해 토성의 구조가 밝혀지게 되었다.⁵⁷⁾ 성산토성은 황강변의 ‘ㄱ’자 형태의 해발 53m 정도의 독립구릉상에 축조되었고 규모는 남북 약 285m, 동서 약 155m, 총둘레 1,050m이다. 북-동쪽은 폐쇄적으로 막혀있고, 황강과 접하는 남-서향은 성안이 외부에서 노출되는 입지이다. 낙동강 수계에서 황강을 따라 합천으로 들어오는 길목에 입지한다.⁵⁸⁾ 성의 북쪽과 동쪽은 구릉의 정상부 외곽 경계를 따라 토성벽을 구축하였고, 성의 서편인 절벽부는 자연적인 방어시설로 절벽부 상단의 경사도를 조정하기 위한 간단한 성토만 이루어졌다.⁵⁹⁾ 남쪽은 구릉부 전체를 석성벽으로 축조하여 토성과 석성이 혼합된 혼축성이다. 토성벽은 『지면정지→하부성토→심석+외벽부 석재보강 및 성토→상단 체성부 성토 및 마무리』의 4단계 공정으로 축성되었다. 4차 공정인 마무리 성토과정에서 내벽과 외벽의 최상단에서 영정주로 추정되는 주혈이 확인되었다. 하단성토부와 상단체성부로 구분되는 토벽의 중간지점의 외벽부 쪽으로 치우친 곳에 석축시설이 확인되는데, 성토부의 골격역할을 하는 석심부로 추정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다른 토성에서는 보이지 않는 특이한 것이다. 성산토성의 축조 및 활용시기는 토성벽 내부의 유물로 보아 5~6세기(562년 전후)로 편년하고 있다.

56) 합천군·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다라국의 도성 성산』, 합천 성산산성 사적지정을 위한 학술대회 자료집, 2019.

57) 경상대학교박물관, 『합천 성산리 성지』, 2011 ; 동서문물연구원, 『합천 성산리 성지(2013년)-합천 성산리 토성 발굴조사』, 2015 ; 동서문물연구원, 『합천 성산리 성지(2015년)-합천 성산리 토성 발굴조사』, 2018.

58) 성산토성은 입지와 내부구조가 금관가야 봉황토성과 유사한 구조이며, 대외교류에 유리한 하천·만의 구릉 말단부에 조성된 고지성 취락에 목책과 성벽을 혼용한 형태의 거점이라는 의견도 있다.(이동희, 『가야의 왕성과 취락』, 『가야고분군』 I, 가야고분군 연구총서 1권, 가야고분군세계유산등재추진단, 2018.)

59) 이 단층 성토부는 남서쪽의 황강과 접하는 부분으로 현재 마을이 들어서 있다. 이곳으로 접근 시설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고, 성산토성의 주 출입시설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본문에 제시한 도면상에 성곽 부호가 기입되어 있지는 않지만, 단순 성토부를 포함한 범위가 성산토성의 전체 범위로 판단된다.



1



2



3



4

그림 14. 합천 성산토성(동서문화연구원 2015)

- (1. 옥전고분군과 성산토성, 2. 성산토성 전경 및 구조, 3. 성산토성 내부 성벽,
4. 성산토성 내부 제사유구 및 출토유물)

성산토성 조사에서는 토성벽 외에도 성내에서 대벽건물지와 제사유구, 수열, 석열 등 다양한 유구가 확인되었다.⁶⁰⁾ 대벽건물지는 다지구에서 조사되었는데, 대벽건물의 북쪽에는 구상유구가 위치한다. 구상유구는 평면상 좁고 긴 직선상 도랑 같으며 대벽건물과 주변 주혈군을 감싸고 도는 형태이다. 구상유구 안에서 정연한 원형의 주혈이 확인되어 울타리시설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출토된 유물로 보아 구상유구는 5세기 중엽 이후에 축조된 것으로 추정된다. 주혈군은 구상유구를 따라 돌아가는 양상으로 이와 관련된 시설물로 보인다. 이 구상유구 안쪽으로 대벽건물 5동이 분포한다. 대벽건물은 평면 방형의 2×3칸 구조로, 규모는 장축 4.4m, 단축 4m이고 구상유구 내 주혈의 직경은 40~80cm, 깊이는 최대 50cm 정도이다. 『대벽건물+구상유구+주혈군』이 하나의 건물지군으로 존재하는 양상이다. 이러한 대벽건물은 전 대가야궁성지와 공주 공산성과 정지산유적, 부여 화기산, 군수리유적 등에서 조사된 바 있다.

제사유구는 가구역 3트렌치에서 소성흔과 함께 조사되었는데, 이곳에서 조와 보리로 추정되는 탄화곡물이 2곳에 구분되어 다량 검출되었다. 검출된 곳은 하부성토부와 상부체성부의 경계지점으로 체성부 조성에 앞서 축성의 성공과 안정을 위한 의례행위의 흔적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다른 제사유구는 나구역에서도 조사되었는데, 평면 부정형으로 내부에 다양한 크기의 주혈과 수혈이 확인되고 여러 번 굴착한 흔적과 토기편, 할석 등이 소성흔과 함께 폐기되어 있다. 이 제사유구는 토성벽과 접하고 있으며 내부에서 인물형 토우가 출토된 점으로 미루어 축성과 관련된 의례시설로 판단하고 있다.

다음으로 성산토성 바로 인근에 조영된 옥전고분군은 4세기 중엽~6세기 전반에 조성된 다라국 왕묘역이다. 옥전고분군은 황강변 구릉에 위치하며 20~30m 급의 고총 28기가 밀집 조영되어 있다. 고총은 동-서 방향으로 뻗은 능선의 서쪽에 군집하고 있으며 주능선의 고총들은 동에서 서쪽으로 순차적인 축조가 이루어지는 경향성을 보인다. 옥전고분군 내 고총은 5세기 중엽에 등장하며 내부 구조가 다양하게 전개된다. 초기에는 위석목곽묘의 축조기술상의 특성을 이어받아 목곽과 석축이 공존하는 구조를 보이는데, M1·M2·M3·M7호로 이어지는 가운데 전형적인 수혈식석곽의 형태를 보이는 M4·M6호가 축조된다. 마지막으로 고총이 축조되는 구릉의 가장 서쪽에 횡구식석실인 M10호와 횡혈식석실인 M11호가 이어서 축조된다.⁶¹⁾

⁶⁰⁾ 이하 성산토성 내부 유구의 설명은 다음 글을 인용하였다.

박상욱, 『합천 성산토성(다라국성)의 구조와 특징-발굴조사 성과를 중심으로-』, 『삼국시대의 토성과 목책성』, 한국성곽학회, 2016.

Ⅲ. 가야 왕성의 공간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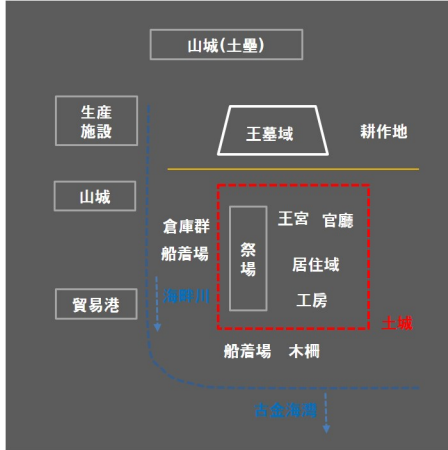


그림 15. 금관가야 왕성 구조 모식

앞 장에서 각 가야 왕성의 구성요소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 장에서는 왕성을 구성하는 중요시설의 배치를 통해 가야 왕성의 구조적 측면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먼저, 금관가야의 경우는 봉황동유적을 둘러싼 봉황토성이 왕성을 구성하는 중핵을 이루고 있다. 금관가야 지역 내에서 유일하게 평지부에 토성이 조성된 곳으로 이곳이 정치·경제·행정의 중심지로 지배 엘리트조직의 존재를 상

정할 수 있는 곳이다. 봉황동 일대는 점토대토기단계부터 장기간에 걸쳐 조성된 취락으로 대성동고분군이 왕묘역으로 확립되는 3세기 후반 이후 다양한 형태의 시설이 이곳을 중심으로 축조되면서 중심취락으로 기능하게 되었다. 이후 대성동 1·3호분이 조성되는 5세기를 전후한 금관가야 전성기의 정점에 봉황토성이 성립되면서 이 곳 일대가 왕성으로 확립된 것으로 파악된다.⁶²⁾ 대성동 구릉이 왕묘역으로 성립되는 대성동29호분 단계에는 확실하게 묘역과 생활역의 구분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여겨지는데⁶³⁾ 이 시기 이후 봉황동 일대에는 분묘가 축조되지 않고 있어 완전하게 공간에 대한 인식이 확립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⁶⁴⁾ 봉황토성으로 둘러진 봉황대구릉 구역은 패총과 주거지가 형성되어 있기는 하지만 주생활역은 구릉 동편과 남편 일대이다. 구릉부는 평탄지가 좁고 왕궁과 생활역이 입지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구릉자체는 제의와 관련된 신성한 공간으로 파악되고 있다.⁶⁵⁾ 금관가야는 봉황토성을 중심으로 왕성을 구성하기 위해 저지대에 대한

61) 박승규, 『옥전고분군과 성산토성의 관계』, 『다라국의 도성 성산』, 합천 성산산성 사적지정을 위한 학술대회 자료집, 합천군·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2019.

62) 박영민, 『4~6세기 금관가야의 읍락 구성』, 경북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63) 대성동 구릉을 중심으로 한 분묘역과 봉황동 구릉을 중심으로 한 생활역은 서로 독자적 원리에 따라 공간이 조직된 것으로 보고 있다.(이성주, 앞의 논문, 203쪽.)

64) 대성동구릉과 봉황대구릉의 경계지역에 해당하는 한옥채험촌유적에서 제방 일부가 조사되었는데, 이곳으로 하천이 흘렀음을 짐작케 한다. 따라서 하천이라는 자연환경이 자연스럽게 묘역과 생활역이라는 의미화된 경관을 형성하였던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대규모 대지조성 토목공사를 실시한 것으로 확인된다.⁶⁵⁾ 그러한 토대 위에 마련된 왕궁지 주요시설로는 먼저 동쪽 사면 아래 평탄지 내 초대형 건물지 및 중층적심건물의 존재를 들 수 있다. 정확한 용도에 관해서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지만 규모와 구조가 일상적인 건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봉황토성 내 왕궁을 구성하는 관청 또는 종교건축 같은 시설로 봐야 할 것이다. 또한 다양한 의례를 상징하는 모형토기와 토우, 복골⁶⁷⁾ 등이 출토되어 이곳 왕궁이 의례의 중심지였던 것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추정왕궁지 구역 내에서 송풍관, 철광석 등이 확인되었고 260번지와 284번지에서 제철로로 추정되는 소토유구와 철 산화물이 판상으로 용착된 소토유구가 확인되어 왕궁 내에서도 철기를 생산하는 수공업공방지가 존재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그 외 소규모 구역에서 조사된 수혈과 주혈군 등을 통해 왕궁 내 주거 등 생활시설이 분포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봉황토성 바로 외곽 서쪽의 가야인체험촌부지에서 고상건물지군이 존재하고 남쪽에서는 선박부재와 노 등이 출토되어 해반천과 고김해만에 인접한 곳에는 선착장과 물자를 하역하여 보관하는 대규모 창고군이 시설되어 있었는데, 규모와 위치로 보아 중심지에서 관리하던 금관가야 대외교역의 중요시설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토성 북쪽으로는 수전 등의 농경지가 분포하고 있는데, 봉황동유적에서 1km 이내는 논과 밭 경작에 유리한 토양분포를 보이고 있어⁶⁸⁾ 토성 북쪽 외곽 일대에 농경지가 형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 외 토성의 북쪽과 서쪽 외곽 인접한 곳에서는 수공업생산시설인 토기가마가 분포하고 있는데 봉황토성 성립이전 단계에 해당하며 봉황토성 성립 후에는 낙동강 인접지나 진례분지에서 토기생산시설이 일부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수공업생산시설의 계획적 이동을 엿볼 수 있다. 그 외, 토성 외곽 5km 밖으로는 동쪽으로 고김해만에 인접하여 「선착장+대규모 밀집 창고군+도로」가 세트로 조성된 관동리유적이 입지하고 진영일대에는 하계리·여래리유적에서 대규모 철생산시설이 분포하고 있다. 그

65) 서영남, 「V.고찰」, 『김해봉황대유적』, 1998 ; 전옥년, 「고고자료로 본 봉황동유적의 성격」, 『봉황동유적』, 제19회 가야사학술회의, 2013.

66) 심재용·김용탁, 「김해 봉황동유적 발굴조사」, 『고구려 고고학의 제문제』, 제27회 한국고고학 전국대회, 2003 ; 한국고환경연구센터, 『김해 가야왕궁지 및 토성확인을 위한 학술조사보고서』, 2009.

67) 회현리 패총에서 다량의 복골이 출토된 바 있는데(부산대학교박물관, 2009, 『김해회현리패총』 II), 박대제는 복골이 출토된 봉황대 일대가 구야국의 신성한 제의공간인 소도(土島)라는 견해를 제시하였다.(박대제, 「삼한의 국읍과 구야국」, 『김해 봉황대유적과 고대 동아시아-가야 왕성을 탐구하다』, 주류성, 2018, 79쪽.)

68) 강동석, 「고김해만 일대 금관가야의 도시 경관」, 『토지활용과 경관의 고고학』, 제42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 2018.

리고 낙동강방면에서 금관가야 중핵인 봉황동일대로 진입하는 교통로상에 나전 리토루와 신기산성 등의 방어시설을 구비하고 있다.

대가야 왕성의 구조는 연조리에 축조된 토성(이하 연조리토성으로 명칭)을 중핵으로 한다. 연조리토성은 해자와 성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성벽은 판축기법을 사용하여 축조하였다. 초축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5세기대로 지산동고분군에서 최초의 왕릉인 73호분이 조영된 이후로 짐작된다. 연조리토성 내에는 왕궁시설로 추정되는 대형 대벽건물이 조영되어 있어 이곳이 왕궁이라는 것을 알려준다. 왕이 상주하며 통치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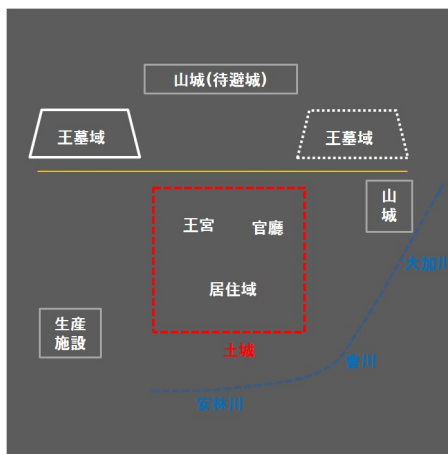


그림 16. 대가야 왕성 구조 모식

이 구비된 연조리토성의 북쪽으로는 유사시를 대비한 주산성이 왕궁과 바로 연결된 구조를 갖추고 있다. 주산성 내에는 대형목곽고가 시설되어 있는데, 구조와 규모로 보았을 때 왕궁과 결합된 산성으로 봐도 좋을 것 같다. 연조리토성과 주산성이 연결되는 능선 좌우는 공지로 남기고⁶⁹⁾ 왕궁 배후로 지산동·연조리고분군이 왕묘역을 형성하고 있는 구조이다. 중심부에 埶과 토기 등을 수급한 생산시설은 왕궁에서 5km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며 철생산시설도 안림천을 따라 서쪽으로 10km 정도 이격된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왕성 외곽에 배치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리고 대가천과 낙동강유역에 집중 분포하는 산성은 왕성방어를 담당하는 구조를 이루고 있다.

아라가야 왕성의 구조는 추정왕궁지인 가야리토성을 중핵으로 각 시설이 편재되어 있다. 정교한 판축공법으로 축조한 성벽 내부에 왕궁이 건설되었을 것이며 내부에는 다양한 시설이 배치되었을 것이다. 왕궁 밖으로는 제방을 시설하여 저지대의 침수방지와 가경지 확보를 꾀하였다. 왕궁지 바로 북쪽으로는 봉산산성이 위치하는데, 이 산성은 유사시 대피하여 입보농성할 수 있는 왕궁 배후산

⁶⁹⁾ 인근의 지산동고분군과 연조리고분군에 수백기의 봉토분이 분포하는 반면 이 능선의 주변공간을 공지로 남긴 현상에 대해 최재현은 통치공간과 사후공간에 대한 확실한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최재현, 『대가야의 왕성과 배치양상으로 본 산성의 기능』, 『가야사의 공간적 범위』, 대가야학술총서12, 고려군대가야박물관·계명대학교 학국학연구원, 2019, 321쪽.)

성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 밖의 산성들은 왕성 외곽을 중심으로 배치하여 羅城의 형태를 갖추며 왕성을 방어하고 있다.⁷⁰⁾ 신전으로 추정되는 대형건물은 왕궁에서 동쪽으로 떨어진 독립구릉상에 위치하여 상호 가시권에 포함된다. 왕묘역인 말이산-남문외고분군은 남동쪽으로 펼쳐져 이 또한 왕궁의 가시권에 항상 들게 한 구조를 보인다. 왕묘역 외에 상위층인 귀족층의 묘역인 선왕고분군, 필동고분군, 덕전고분군 등이 왕궁 서쪽과 북쪽 가까이에 포진하고 있어 아라가야 왕성은 왕궁 주변에 왕묘역과 상위층묘역이 둘러싸고 있는 형태를 보인다. 그 외 수공업생산 시설은 생산품의 이동이 용이한 왕궁 북쪽 외곽 남강 가까이에 위치시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생산체제가 유지되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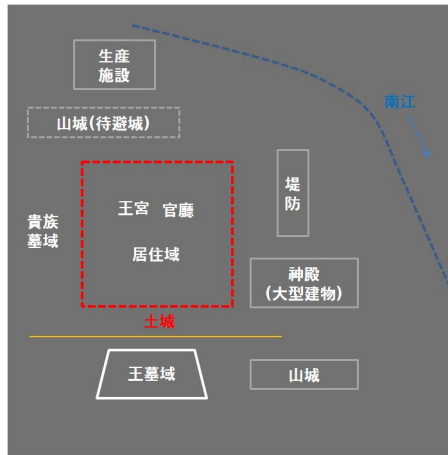


그림 17. 아라가야 왕성 구조 모식

다라국 왕성의 구조는 교통의 요충이면서 자연해자의 역할을 하는 황강변에 성산토성을 중심으로 바로 인접하여 왕묘역이 입지하는 구조이다. 성산토성 내부에는 대형 대벽건물이 존재하며 토성축조와 관련된 제의시설이 확인되는 등 이곳이 행정과 의례 중심이었음을 알 수 있다. 토성 외곽으로 조사가 적어 구체적인 왕성의 구조를 검토하기에 아직 한계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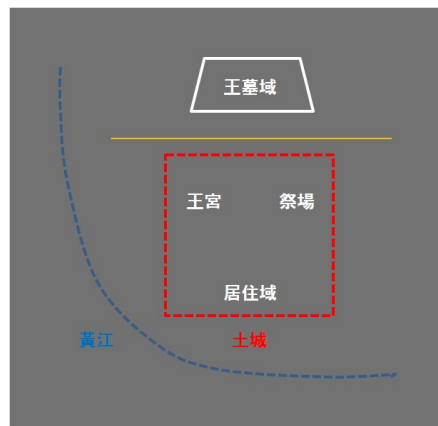


그림 18. 다라국 왕성 구조 모식

⁷⁰⁾ 이지은, 『안라국 도성의 경관 연구』, 경남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IV. 가야 왕성의 경관

앞서 살펴본 가야 왕성의 구조를 통해 공통된 경관을 살펴보면, 왕성은 모두 선박이 드나들 수 있을 정도의 큰 강변(또는 해안가) 가까이에 입지하는데 이곳은 모두 관문적 성격을 띠는 교통의 요지이며 조망과 방어상의 이점을 고려한 입지이다. 고대 삼국의 도성 입지와도 공통된다. 봉황토성은 평지부에 축조하였지만 내부에 봉황대 구릉을 포함하고 연조리토성, 가야리토성, 성산토성은 해발 높이는 높지 않지만 주변 모두를 조망할 수 있는 탁월한 입지를 가진다. 이는 최고지배권력의 거주공간을 현저한 입지에 배치하여 정치권력에 대한 가시적 효과를 확보하기 위한 의도로 볼 수 있다.⁷¹⁾ 가야는 중심지에 위곽시설인 토성을 축조하여⁷²⁾ 왕이 거주하는 공간을 왕묘역 등 주변시설과 분리하는 공통성을 보인다. 토성을 축조하기 전단계부터 조영된 지배자 묘역이 거주 중심지에서 바로 인접하여 위치하는데, 토성 성립시점에 별도로 왕묘역을 이동하지 않고 누대로 이어가면서 바로 인접하여 상호 가시권 내에 두면서 왕성 경관을 완성하였던 것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토성 내에는 궁전 또는 관청건물로 추정되는 특수건물이 축조되는데, 대표적인 예가 봉황토성 내의 3호 건물지 및 중층적심건물지이며 연조리토성과 성산토성의 대벽건물지, 가야리토성 내의 대형수혈건물지도 이에 해당한다. 아울러 봉황토성과 성산토성에서는 제의공간도 함께 확인된다. 봉황토성 내에는 소규모의 제철공방도 확인되고 있어 외곽에서 생산된 철소재를 가져와 간단한 철기생산도 이루어졌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중심지 위곽시설로 토성이 성립된 후에는 대규모 생산시설 등을 외곽에 배치하는 공통점이 보이는데, 봉황토성의 경우에는 토성 성립전의 중심지 토기공방지(가야인체험촌부지)가 폐기되고 토성에서 멀리 이격된 곳에 생산지가 확인되는 예가 보이며, 가야리토성의 경우에는 토성 성립전부터 조성된 대규모 수공업생산단지 자체가 중심지에서 떨어진 남강변의 수로교통이 편리한 곳에 입지한다. 연조리토성의 경우도 5km 이상 이격된 곳에 搏과 토기를 생산하는 생산시설이 위치한다. 대부분 토성에서 5km 밖에 토기 및 철기생산시설이 입지하는 양상을 보인다.

71) 강동석, 앞의 논문, 178쪽.

72) 위곽시설은 내부에 주민, 저장시설, 신분이 높은 가족, 의례장소 등 위곽 내부에 보호해야 할 것 때문에 등장하고, 그것이 중심이 되어 위곽시설 안팎으로 집주가 이루어지며, 사람들 간의 분화와 전문화도 진행된다. 이런 과정에서 삼국시대 도성 및 주변 경관이 형성된다.(이성주, 「마을(촌락)과 도시에 관한 고고학의 논의」, 『고고학』11-2호, 2012, 26쪽.)

표 1. 가야 왕성 내의 시설 현황

구분	내부시설			외부시설								
	특수 건물	제의 시설	수공업 생산 시설	왕묘역	특수시설			수공업시설				방어 시설
					선박장	특수 건물	제방	토기	제철	농경지	대피성	
봉황토성 (금관가야)	●	●	●	●	●			●	●	●		●
연조리토성 (대가야)	●			●				●	○		●	●
가야리토성 (아라가야)				●		●	●	●			○	●
성산토성 (다라국)	●	●		●								

※ ○ : 가능성 높은 유구가 있지만, 발굴조사 되지 않음.

대가야와 아라가야의 경우, 토성 배후에 유사시 피난처인 산성이 조합관계로 배치된 구조를 보이는데 고구려 도성인 ‘국내성-환도산성’과 ‘전기평양성-대성산성’의 조합과 유사한 구조로 볼 수 있다. 금관가야의 경우에도 배후에 분산성이 존재하지만 시기상 초축시점이 7세기 이후로 가야시기 산성의 존재는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⁷³⁾ 가야 왕성의 공통된 현상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⁷⁴⁾ 다만 금관가야, 대가야, 아라가야 모두 왕성이 건립된 중심지로 이어지는 교통로상에는 산성 또는 토루 등이 조성되어 왕성 방어체제는 갖추어져 있었다는 것은 공통된다.

이상으로 가야 왕성의 경관을 정리하면, 왕과 지배자가 거주하는 왕궁을 중심으로 위곽시설인 토성을 축조하고 내부에는 「왕궁-관청-특수건물(종교·제의)」, 배후에는 「왕묘(귀족묘)-생산시설(제철·토기)-경작지-(제방)」 등의 시설을 배치하여 토성 내로 권력이 집중화하는 가시적인 경관을 조영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왕궁을 보호하는 토성을 통해 왕묘역과 경계를 구분하지만 왕묘역이 왕궁에서 바로 인접하며 상호 가시권에 포함되는 독특한 경관을 가지는 것이 주목되는 특징이다. 가야 왕성의 구조와 경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왕이 거주하는 공간 즉 왕궁지를 보호하는 위곽시설인 토성이 성립되면서 본격화된다는 것이다.

73) 동아세아문화재단연구원, 『김해 분산성 동문지』, 2013.

74) 송원영은 광개토태왕비문의 입나가라 종발성을 분산성으로 비정하고, 분산성의 분(盆)이 종바리(사발)을 의미하고 종발성은 분성의 음차라 파악하고 있다.(송원영, 앞의 논문, 18쪽.)

통치자와 귀족층이 중심지로 집주하게 되는 것이 토성성립의 큰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⁷⁵⁾ 봉황토성, 가야리토성, 연조리토성, 성산토성 모두 축조시기에 약간의 차이를 보이지만 대부분 5세기대 들어와서 본격적인 축조가 이루어지며, 봉황토성을 제외하면 5세기 후반에 집중된다. 대가야와 아라가야의 경우 5세기 후반대가 가장 강성한 시점⁷⁶⁾이며 이 시기에 왕권을 상징하는 대형봉토분이 지산동과 말이산에 성행한다. 통치자와 귀족층이 거주하는 중심지는 이전시기인 원삼국단계부터 성립되었을 것으로 파악되지만, 위곽시설인 토성을 축조하여 가시적인 왕성으로의 성립은 5세기에 들어와서이다. 가야에서는 백제와 신라처럼 잘 구획된 도로와 사찰을 중심으로 한 특수·공공시설의 정연한 배치현상은 보이지 않고, 자연 산발적으로 건설된 시설을 중심으로 편재하는 형태로 왕성경관을 구성하려 했던 것으로 이해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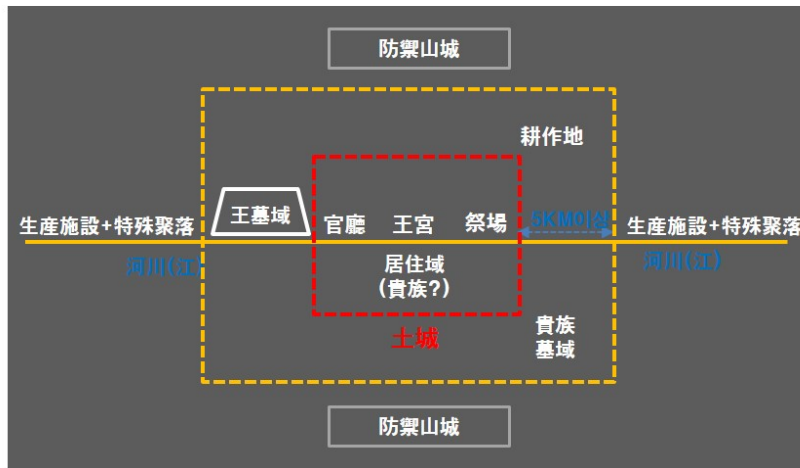


그림 19. 가야 왕성의 구조 모식

왕성에서 도성으로의 전환은 대규모 토목공사를 수반하는데 당시에는 인력과 축력 정도로만 진행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결국 6세기 중엽인 가야사회의 멸망까지 도성으로의 발전에 많은 시간이 허락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된다. 금관가야의 경우에는 400년 고구려 남정 이후 완전히 해체되지는 않았지만 상당한 타격을 입어 더이상 도성체제를 발전시켜 나갈 여력이 없었을 것이다.

⁷⁵⁾ 권오영, 『토목기술과 도성조영』, 『삼국시대 고고학개론1-도성과 토목편-』, 진인진, 2014, 50쪽.

⁷⁶⁾ 대가야는 475년 남제에 견사하여 보국장군분국왕이라는 작위를 제수받았으며, 아라가야에서도 5세기 후반대에 대형 고총이 집중적으로 조영되는 양상 등을 통해 5세기 후반대가 최대 전성기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상기 살펴본 가야 왕성의 구조와 경관적 측면을 고려해 보면, 지배자 거주지의 분리, 왕궁의 축조, 왕묘역의 조성, 제장 및 공공시설 마련, 생산시설 분리배치, 중심지 방어시설구축 등 완전한 도시구조인 도성체제를 갖추기 전의 형태를 보이고 있지만, 6세기 이후 가야가 놓인 급박한 대외정세로 인해 도성의 완성으로는 이르지 못하였던 것으로 이해된다. 바꿔 말하면 가야 왕성은 한반도 고대국가의 도성체제로의 이행기의 양상을 보여주는 좋은 자료로 이해해 볼 수 있을 것이다.

V. 맺음말

이상으로 금관가야, 대가야, 아라가야, 다라국을 대상으로 가야 왕성의 공간 구조와 경관에 대해 살펴보았다. 가야 왕성의 구조적인 부분을 검토해 본 결과 신라와 백제와 같이 도시구획을 기본으로 하는 도로와 사찰은 조성되지 않았지만, 고대 도성체제의 구성요소인 왕궁, 취락, 왕묘, 제의시설, 생산시설 등은 두루 갖추고 있었다. 그리고 왕궁과 왕묘역이 1km 이내 상당히 지근거리에 인접하며 상호 가시권에 포함되는 경관은 가야 왕성만의 공통된 특징 중 하나로 이해되었다. 가야는 왕궁을 보호하는 위곽시설인 토성을 축조하면서 왕성의 공간구조를 확립해 나가는데, 특히 중요시설을 중심지로 배치하고 특수생산시설 등을 위곽으로 이동시키는 양상은 도성체제의 인식을 보여주는 정황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금관가야의 경우 토성 성립 이후 400년 고구려 남경과 신라의 서진 등으로 인해 도성체제로의 발전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며 후기가야의 대국이었던 대가야와 아라가야 또한 5세기 후반 토성성립에서 멸망기까지 도성 개발에 진력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결국 가야는 미완의 도성이라 할 수 있을 것이며 이것을 바꿔 생각하면 한반도 고대국가의 도성체제로의 이행기의 양상을 보여주는 좋은 자료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자료적 한계와 필자의 능력 탓으로 고대 삼국의 도성과의 세부적인 비교검토는 전혀 진행하지 못하고 가야 왕성의 정태적 공간구조만 규명하는 수준에 머물고 말았다. 이에 가야 왕성의 고고학적 자료와 삼국 도성과의 보다 입체적인 비교연구가 향후 필요하다는 것으로 본고를 통해 강조해 두고자 한다.

■ 투고일 2020년 09월 13일 | 심사완료일 2020년 10월 03일 | 게재확정일 2020년 10월 13일 ■

참고문헌

※보고서 생략

<단행본 및 논문>

- 강동석, 『고김해단 일대 금관가야의 도시 경관』, 『토지활용과 경관의 고고학』, 제42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 2018.
- _____, 『아라가야 국의 공간구조』, 『아라가야의 역사와 공간』, 도서출판 선인, 2018.
- 권오영, 『토목기술과 도성조영』, 『삼국시대 고고학개론1-도성과 토목편-』, 진인진, 2014.
- 기경량, 『고구려 왕성 연구』, 서울대학교대학원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17.
- 김권일, 『대가야 철의 생산과 유통 추론』, 『대가야 문물의 생산과 유통』, 대가야학술총서10, 고령군대가야박물관·(재)영남문화재연구원, 2015.
- 김지연, 『함안 범수면 일대 토기 가마와 조사성과』, 『가야와 왜의 토기생산과 교류』, 2019년 가야사 기획학술심포지엄,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2019.
- 국립김해박물관·한국매장문화재협회, 『기와, 공간을 만든다』, 2016.
- 국립진주박물관, 『서부경남의 성곽』, 2011.
- 대가야박물관, 『산성을 쌓아 궁성을 지키다』, 제10회 대가야박물관 기획특별전 도로, 2013.
- 민경선·김다빈, 『금관가야 중심지로서의 봉황동유적-최신 조사 성과를 중심으로-』, 『한국고고학보』109, 한국고고학회, 2018.
- 박상욱, 『합천 성산토성(다라국성)의 구조와 특징-발굴조사 성과를 중심으로-』, 『삼국시대의 토성과 목책성』, 한국성곽학회, 2016.
- 박승규, 『옥전고분군과 성산토성의 관계』, 『다라국의 도성 성산』, 합천 성산산성 사적지정을 위한 학술대회 자료집, 합천군·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2019.
- 박영민, 『4~6세기 금관가야의 읍락 구성』, 경북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 박대재, 『삼한의 국읍과 구야국』, 『김해 봉황도유적과 고대 동아시아-가야왕성을 탐구하다-』, 주류성, 2018.
- 박천수, 『가야토기』, 진인진, 2010.
- _____, 『가야 문명사』, 진인진, 2019.
- 소배경, 『김해 관동리유적과 가야의 항구-김해 관동리 삼국시대 진지(津址)를 중심으로-』, 『가야의 포구와 해상활동』, 주류성, 2011.
- 송원영, 『금관가야와 광개토왕비문 경자년 남정기사-김해지역 고고학 발굴성과를 중심으로-』, 부산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 심광주, 『가야리토성의 축성법과 의의』, 『2019 ‘가야리유적’(전 아라가야 왕궁지) 사적지정을 위한 학술심포지엄』, 창원대학교 경남학연구원, 2019.

- 심재용·김용탁, 『김해 봉황동유적 발굴조사』, 『고구려 고고학의 제문제』, 제27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 2003.
- 전옥년, 『고고자료로 본 봉황동유적의 성격』, 『봉황동유적』, 제19회 가야사학술회의, 2013.
- 조효식·장주탁, 『가야의 성곽』, 『가야고고학개론』, 진인진, 2016.
- 안성현, 『함안지역의 가야산성』, 『아라가야산성, 보존과 활용』, 2017 창원대학교 경남학연구센터 학술심포지엄, 2017.
- 이동희, 『가야의 왕성과 취락』, 『가야고분군』 I, 가야고분군 연구총서 1권, 가야고분군세계유산등재추진단, 2018.
- 이성주, 『마을(촌락)과 도시에 관한 고고학의 논의』, 『고고학』11-2호, 2012.
- _____, 『국읍으로서의 봉황동유적』, 『김해 봉황동유적과 고대 동아시아-가야 왕성을 탐구하다』, 주류성, 2018.
- 이정근, 『함안 우거리토기생산유적』, 국립김해박물관, 2007.
- 이지은, 『안라국 도성의 경관 연구』, 경남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 이은석, 『고대 왕성의 비교』, 『아라가야의 역사와 공간』, 도서출판 선인, 2018.
- 이춘선, 『함안 아라가야 추정 왕궁지 최신발굴성과』, 『2018 가야문화유산 최신조사성과』,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2018.
- 이희준, 『대가야고고학연구』, 사회평론, 2017.
- _____, 『함안 아라가야 추정 왕성지 발굴조사 성과』, 『2019, ‘가야리유적’(전 아라가야 왕궁지) 사적지정을 위한 학술심포지엄』, 창원대학교 경남학연구센터, 2019.
- 임학중·이정근, 『고령 연조리 563-3번지 대가야 토성에 대하여』, 『수리·토목고고학의 현상과 과제』II, 우리문화재연구원, 2018.
- 최경규, 『아라가야 고분군 분포로 본 공간활용과 그 의미』, 『아라가야의 역사와 공간』, 도서출판 선인, 2018.
- 최재현, 『대가야읍내 취락과 대가야궁성』, 『고령의 기와』, 대가야박물관, 2017.
- _____, 『대가야의 왕성과 배치양상으로 본 산성의 기능』, 『가야사의 공간적 범위』, 대가야학술총서12, 고령군대가야박물관·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019.
- 홍보식, 『신라도성의 건설과 구조』, 『삼국시대 고고학개론1-도성과 토목편-』, 진인진, 2014.

Abstract

The Spatial Structure and Landscape of the Gaya Capital City

Choi, Gyong-Gyu

Among the Gaya empires, Geumgwan-Gaya, Dae-Ggaya, Ara-Gaya, and Dara-Guk were found to have fortresses where kings and rulers lived. The archaeological aspects, including the surrounding ruins, were organized and the structural features and scenery of the Gaya Kingdom were explored in a macro-level manner. No roads or temples were built based on urban areas such as Silla and Baekje. However, it was confirmed that royal palaces, settlements, royal tombs, ritual facilities, and production facilities were all part of the ancient capital city system. And the view that the royal palace and the Wangmyo station are close to each other within a kilometer of distance can be seen as one of the common characteristics of Gaya's royal castle. Gaya established the space structure of the fortress while building the fortress, which is a memorial facility for the royal palace. In particular, the pattern of placing important facilities in the center and moving special production facilities to the outskirts can be seen as evidence of the perception of the capital city system. However, in the case of Geumgwan Gaya, it must have been difficult to develop into a capital city system due to the 400 years of the southern conquest of Goguryeo and the westward advance of Silla after the establishment of an earthen rampart. It is understood that Dae-Gaya and Ara-Gaya, which were great kingdoms of the end of the Gaya period, were also not in a condition to concentrate on the development of the capital from the establishment of an earthen rampart to the late 5th century. In other words, Gaya is an unfinished city, and in other words,

the best archaeological data showing the transition period of the ancient Korean peninsula's capital system is Gaya's royal castle.

Key Words : The castle, capital city, capital system, fence facility, an earthen rampart, royal palace, royal tomb, ritual facility, production facility, space structure, landscape, transition period

